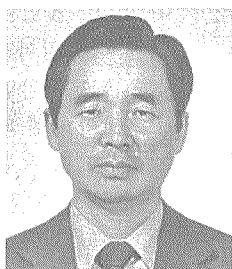


일본도 요충감염율은 여전히 높다



최 원 영

지난 4월초에 제58회 일본기생충학회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다. 일본은 명치유신 직후 독일의 의학자들을 초청하여 독일의학을 도입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후에는 미국의학을 받아 들여 꾸준히 성장하여 의학계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 있다. 기생충학도 일찍부터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어 큰 업적을 남기고 있다.

우리나라가 6.25휴전 후부터 기생충학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여 기생충학회가 올해로 30년을 맞이한 것에 비하면 일본에서는 제1세대 학자들이 이미 물러나고 제2세대 학자들의 활약이 한참인 듯 하였다. 따라서 많은 연구 인력과 축적된 지식 및 기술로 오늘날 국제 협력까지 시선을 돌리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번 학회에서는 회원의 수가 1,026명이라고 하니 국내의 회원수가 200명이라 하더라도 약 5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학술대회도 전국규모는 년 1회이며, 각지방별로 지방마다 년 1회씩 별도의 지방학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번의 제 58회 일본기생충학회는 동경에 소재하는 순천당대학이 주최하여 4월 3일, 4일 그리고 5일까지 3일동안 개최되었다. I, II, III, IV 및 V 회장까지 5개의 강당에서 일반연제가 발표되었으며, 그 사이 사이에 특별강연, 심포지움 및 워크샵등의 프로그램을 삽입하여 다양하고 알찬 학회를 진행하였다.

오늘날 일본은 다른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토양매개 장내기생충인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 및 동양모양선충등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으나, 점촉성선충인 요충의 감염은 어린이층에서 높은 감염율을 보여 학동보건상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듯 하였다.

그외에 조충류중에서 유구조충은 아직

저산소압적응"이라는 제목으로 특히 회충의 에너지 전환계에서의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계의 생리적 의의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이는 기생충을 이용하여 동물의 에너지 대사를 추구하는 흥미있는 과제라고 볼 수 있었다.



일본 기생충학계는 차츰 기초 생물학에 관심이 치우쳐가면서 개발도상국의 현실문제인 기생충증, 역학, 생태학 등의 분야는 기피하고 있어, 앞으로의 국제협력에 있어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발견된 바 없다고 하나, 각종 열두조충이 전국 여러 곳에서 발견예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해양생선에서 감염되는 아니사키스는 여전히 많은 증례가 보고되고 있었다.

이번 학회에서는 미국의 노-틀담대학의 외인슈타인교수의 특별강연이 있었는데 "비타민 B₁₂와 연충류와의 관계, 특히 생화학분화 및 진화적 바탕에서"라는 제목하에 연충류의 대사과정에서 특히 비타민 B₁₂와의 관계를 추구한 것이었다.

이어서 이번 학회의 회장인 오-야교수도 "기생충의 에너지 전환계에서 보는

그외에 심포지움은 "기생생물학과 기생충병학"으로 기생충학을 생물학적 측면과 기생충병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양자의 상호 영향이 마치 자동차의 양쪽 바퀴와 같은 관계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워크샵으로는 "기생충학과 국제 협력"이었는데 이제까지 일본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의 관점에서 토의가 있었다.

오늘날 일본에서 기생충학 연구의 유행은 세포생물학, 기생생물학, 면역학 및 생물기술등 평가받기 좋은 기초생물학에 치우쳐 있는 듯 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의 현실 문제인 기생충증, 역학, 생태학 및

구층 연구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한다. 이같은 문제는 앞으로의 국제 협력에 대한 장애요소라 생각되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각종 기생충질환도 전세계적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인류를 위협하는 질환중 그 비중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말라리아를 보더라도 세계인구 50억중 27억이 위험지역에서 살고 있는 실정이며, 주혈흡충, 사상충, 리슈마니아 등은 많은 인구가 이환되어 있고 또 감염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질환들은 아직도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후진적인 나라들로서 스스로 관리능력을 갖기가 쉽지 않은 지역들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때 축적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여유있는 경제적 여건을 가진 일본이 국제 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는 회원들의 제안이 있었다.

이같은 해외프로젝트는 실제로 국제협력사업단의 후원으로 브라질등에서 1984년 이래 운영되어 왔다고 한다. 현재 일본기생충학회의 회원이 과거 5년동안 국제협력을 실행한 대학이나 연구소의 강좌수는 58개 이었고, 파견지는 아시아 18개국, 아프리카 10개국 및 중남미 11개국등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경비는 일본문부성에서 54건, 국제협력사업단에서 52건, 그외는 WHO등의 국제기관과 사사가와재단의 후원이었다고 한다.

이번의 제 58회 일본기생충학회는 위의 특별프로그램이외에 일반연제로 기생충의 생리,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분야가 31연제,

형태 및 분류가 33연제, 생활사, 생태 및 연학분야가 15연제, 병리 및 임상분야 12연제, 면역학 35연제, 검사 및 진단분야 7연제, 약리, 실험치료분야가 10연제등 총 143연제가 발표되었다. 그외에도 63제의 포스터전시가 이루어져 전체 206연제가 토의된 셈이다.

참가 인원은 확실하지는 않으나 약 400~500명 정도였다고 생각되었다. 일본의 기생충학계가 이상과 같이 활발한 이유로는 일반국민의 의학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크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학자들의 노력과 성실, 또 이들의 연구를 가능케하는 사회풍토등 많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근래에 우리 주위에서 많은 기생충질환이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라져가는 기생충이 있는 반면 새로이 등장하는 기생충 질환이 있음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임상사들의 노력으로 아니사키스의 발견예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50명을 돌파한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의 등장과 함께 기회감염증으로 뉴모세스티스 카리니 폐염과 특소플라즈마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점차 학계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현시점이다.

또 많은 사람들의 해외여행의 산물로 수입기생충의 증가등도 소홀히 넘겨서는 안될 것이고 일본기생충학계의 동향을 살펴 보아 우리의 참고가 될 것을 기대한다.

〈필자 = 가톨릭의대 교수〉